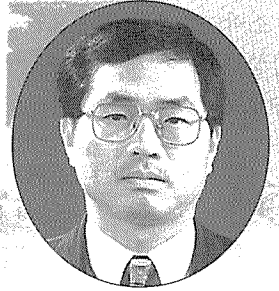


원자재 수급현황과 대책



신 현 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5월 들어 원자재난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부족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원자재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아 생산 및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수입 차질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재고부족으로 국내 원자재값은 국제시세와는 정반대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원자재 수급상의 왜곡이 완제품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 이후 환율안정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현재 주요 원자재의 보유재고량은 대부분 적정재고량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품목별로는 원유, LPG, 등, 밀 등 일부 품목은 보유물량이 적정재고량의 90%대를 유지하고 있어 원자재난이 거의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원피(53%), 대두(42%), 고철(60%), 알루미늄괴(85%) 등은 적정재고 대비 보유재고량의 비율이 여전히 낮아 원자재 부족 현상이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피나 대두의 경우에

주요 원자재 재고동향(5월 18일 현재)

품 목	적정재고량 (A)	보유재고량 (B)	적정대비 현재고비율	도입예정 (C)	(B+C)/A
원유·석유제품	58일	53일	92%	10일	109%
LPG	17일	15일	90%	8일	135%
고철	15일	9일	60%	8일	111%
전기등	12일	12일	97%	30일	338%
알루미늄괴	23일	20일	85%	9일	124%
원면	44일	47일	107%	42일	202%
원피	30일	16일	53%	6일	73%
원당	25일	17일	66%	30일	185%
밀	60일	56일	93%	25일	135%
대두	60일	25일	42%	30일	92%

자료 : 산업자원부사

주 : 1) 해당품목의 사용가능일수임.

2) 도입예정 = 미통관분 + L/C개설량, 확보재고량 = 보유재고량 + 도입예정물량

는 적정재고 대비 확보물량의 비율마저 낮아 원자재 부족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유물량에 미통관분이나 L/C개설분 등 기업들이 향후 도입예정인 물량을 포함한 확보재고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원자재가 오히려 적정재고량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3월 초에 비해 훨씬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및 국내가격 동향(현물가)

품 목 명	국 제 가 격				국 내 가 격			
	단위	97. 10	98.5.18	증가율	단위	97. 10	98. 5. 18	증가율
원유(두바이)	달러/배럴	19.22	12.66	-34	원/리터	819.5	1,047	28
전기동	달러/톤	2,051	1,632	-20	천원/톤	2,103	2,815	34
알루미늄괴	"	1,607	1,355	-16	"	1,700	2,170	27
아연	"	1,280	1,058	-17	"	1,654	1,793	8
고철	"	150	125	-17	"	129.9	143	10
연피	"	600	533	-11	"	712	986	32
원면	\$/파운드	0.8675	0.7920	-9	원/파운드	800	1,084	36
원피	달러/매	72	62	-14	천원/매	66.4	60	-10
천연고무	달러/톤	900	820	-8	천원/톤	830	1,095	32
펠프	"	530	490	-8	"	488.7	730	49
원당	"	301	299	-1	"	278	418	50

자료 : 산업자원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물량을 과거에 비해 낮추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확보재고량이 지난 3월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 수급상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적정재고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80%에 이르는 정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가동률이 65%로 떨어진 현재로서는 적정재고 수준도 낮아진 것으로 여겨지므로 실제 재고부족 현상은 덜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전인 작년 10월보다 10%나 올라가 수요업체들은 가급적 비축 재고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비철금속(알루미늄, 아연, 연, 동) : 알루미늄, 아연, 연, 동 등 4대 비철금속의 재고는 현재 적정 수준에 다소 못미치나 수입 예정량을 감안할 경우 수급상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 알루미늄 가공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신용도 하락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면 : 미 농무성의 원면구입자금(GSM) 지원에 따른 수입 L/C 개설로 4월 이후 원면 수입이 늘어나면서 5월 18일 현재 원면의 보유물량은 적정재고량을 넘어서고 있다. GSM자금에 의한 도입 원면은 국내 연간 수요량의 1/3에 달하는 양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원면수급사정은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나프타 :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 동남아 등 설비 신증설 투자 중단으로 나프타 수요감소 등 수급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국제 나프타가격은 작년 12월 212달러에서 금년 2월 158달러, 3월 중순에는 147달러로 하락하였다.

원피 : 현재 원피의 재고는 적정재고의 절반을

고철, 원피, 알루미늄괴 등이 특히 원자재난 심각

주요 원자재의 보유재고량과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 수급상황은 연초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철 : 국제 고철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수입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세가 국내 고철 가격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요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국산 고철의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국산 고철가격이 IMF

약간 웃도는 수준인 16일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산 원피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미 상품신용공사(CCC)가 배정한 1억달러의 GSM자금을 통해 원피수입을 해 왔으나, 이 자금이 20일만에 소진된 이후 금융기관들의 신용장 개설 기피 등으로 원피수입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용 피혁원단의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 수급, 왜 차질이 빚어지고 있나?

최근 들어 원화환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3월 이후 외환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으나, 은행들은 여전히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정하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시 현금예금이나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때에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IBRD 자금 10억달러를 활용하여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필요한 원자재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해 수입금융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국내은행은 대외신용 하락으로 외국 원자재 공급업자들이 국내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을 꺼리고 있다. 특히 대외신인도가 높은 국내 7~8개 은행에서 개설되는 신용장 이외에는 기타 은행들의 신용장은 외국은행들로부터 여전히 외면을 당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일부업체의 사재기와 판매업체의 출고조절이 가세하는 등 원자재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해 원자재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중소기업들의 경우 원자재 구매시 현금결제 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한편, 가격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원자재 구매가 원활히 되지 못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시 대부분 중합상사를 통해 조달하는데 IMF 이전 20%를 밀들었던 현금지급 비율이 최근에는 50%를 웃돌고 있으며 또 담보요구 비율도 작년의 11%에서 최근에는 17%대로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및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원자재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그 어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환율 안정으로 대기업의 수입물량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담보부족과 낮은 신용, 그리고 공급선인 대기업의 현금결제 요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가격 하락 속에 국내 원자재가격은 상승

올들어 국제 원유 가격은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이라크의 생산 재개로 인해 작년 10월의 19달러선에서 5월 현재 12달러 선으로 30% 이상 하락하였다. 또 고철 및 알루미늄·아연·동 등 비철금속도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15~20%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원화환율이 급등함으로써 국내 원자재가격은 오히려 인상되었다. 국내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을 보면 IMF사태 이후 원당은 50%, 천연고무 32%, 원면 36%, 알루미늄과 27%, 펄프 49%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원자재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원자재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난 점차 완화 전망

현재의 원자재난은 대외여건의 개선 및 환율안정,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 등 제반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현재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은행의 L/C개설 감소로 당분간은 원자재 채고 부족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L/C개설이나 유전스 L/C개설은 상당 기간 동안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년 1월 BIS기준 산정시점의 소급(작년 말로)조치로 은행들의 L/C개설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 2/4분기 말 이후 원자재 수급여건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원자재의 해외 공급여건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어 원자재 수입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원유, 나프타, 알루미늄, 구리, 고철, 펄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국내에서 원자재난이 심각한 알루미늄·아연·주석·천연고무 등의 세계생산은 작년보다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환율안정도 원자재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3월 중순 이후 1,400원 내외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하향 안정추세를 지속할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수입증가, 로컬공급 증가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자재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안정시 수입 재개 및 직수출보다 로컬공급 선호 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원자재난을 해소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BRD로부터의 공여자금 10억 달러를 원자재 수입용으로 긴급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외환보유고 목표초과 달성분 중 20억달러를 원자재 수입금용으로 추가로 지원할 방침으로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해외기체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도 수출입금융 지원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원자재 수급안정 대책은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추세는 무역수지의 개선과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 등 우리 경제에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원자재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원자재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입L/C 개설을 더욱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BIS기준을 충족한 일부 시중은행이나 수출입 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원자재 수입금융을 확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원자재 수입금융 지원실적 등이 양호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지원도 고려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이 해외기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원자재 수입금융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담보 및 현금동원력의 부족과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원자재 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자재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게는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의 원활한 방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원자재 수입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은행들의 수입신용장 개설이 과거와 같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정부가 IBRD 등 국제기구자금과 외환보유고 목표초과 달성분 중 일부를 토대로 하여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원자재 수입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원자재 수입시 드는 신용장개설 수수료, 통관료, 입항료 등 각종 세금 및 수수료의 증가가 원자재 수입업체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자재 수입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세금면제 및 수수료의 인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